

『어느 戰爭의 手記』, 그 構成上의 問題點

孫 永 林

『Beschreibung eines Kampfes』, deren Problematik der Zusammensetzung

Son Yeong-lim

目 次	
1. 序 言	d. 肥大漢과 祈禱하는 사나이의 對話繼續
2. 構成上의 問題點	4) 肥大漢의 破滅
2-1. 第一部	2-3. 第三部
2-2. 第二部	3. 『斷篇集』의 斷篇『어느 戰爭의 手記』에 서의 《두 對話》와의 關係
1) 騎行	4. 結 語
2) 散步	略字表
3) 肥大漢	參考文獻
a. 風景에 대한 人事	
b. 祈禱하는 사나이의 對話開始	
c. 祈禱하는 사나이의 이야기	

Zusammenfassung

Es handelt sich bei diesem Aufsatz um die Problematik der Zusammensetzung im Frühenwerk »Beschreibung eines Kampfes« von Kafka. Kafka schrieb die zwei Fassungen der Beschreibung eines Kampfes; die erste Fassung von ihm wurde im Jahre 1904/1906 und die zweite im Jahre 1909/1910 geschrieben. Die Fassungen bestehen alle aus drei Abschnitten, und die zweimaligen Reinschriften derselben sind in die Reihe Abschnitt I, II, III geordnet. In dieser Ordnung besteht die Problematik.

Die zwei Episode enthaltender Abschnitt II bildet die Rahmenerzählung mit den zwei Bereichen. Das Gespräch zwischen Ich-Erzähler und meinem neuen Bekannten bildet den äußeren Rahmen der Erzählung und die Geschichte des Beters darin den inneren derselben.

Man wird zusammenfassend sagen können, daß die Elemente der Rahmenhandlung die innere und äußere Situation des Autors reflektieren. Vor allem jedoch muß man an die Thematik der Rahmenerzählung erinnern, wo der in erotischen und überhaupt gesellschaft-

lichen Bindungen stehende Begleiter der Hauptfigur dem gehemmten autistischen Erzähler gegenübergestellt ist.

Abschnitt II ist die Geschichte des Laurenzibergsteigens; Abschnitt I und III sind die Geschichten auf dem Wege dieses Bergsteigens. Daher wird man wahrscheinlich glauben können, daß man die Ordnung dieses Abschnitts in die Reihe Abschnitt I, III, II wechseln kann. Aber wird man absichtlich die Ordnung nicht wechseln können, weil die zweimaligen Reinschriften der zwei Fassungen Kafkas immer in die Reihe Abschnitt I, II, III geordnet sind.

Das Thema dieses Aufsatzes besteht darin, wie man die Problematik als Hauptzweck auslegen und rechtfertigen können wird.

1. 序 言

Kafka 作品의 거의 대부분(斷篇이나 小說)이 모든 日常的인 自己限定的 可能性의 突然하고 不可解한 喪失에서 시작되고 있다.¹⁾ 1910年의 그의 日記에 따르면 <어떤 忘我的 狀態에서, 精神的 散漫에서, 恐怖, 驚愕, 疲勞에 빠지면 時間의 흐름에서 밀려나 버린다.>(T.18 참조)고 말하고 있다. 또 그 바로 앞 부분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린 종래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우리의 눈에 비친 것, 우리의 귀에 들었던 것, 우리들의 발이 닿았던 것에 우리의 전 인격을 돌리고 있었으나, 우린 지금 갑자기 그 반대 방향으로 마치 산속의 風信旗처럼 몸을 돌린다. /Waren wir bisher mit unserer ganzen Person auf die Arbeit unserer Hände, auf das Gesehene unserer Augen, auf das Gehörte unserer Ohren, auf die Schritte unserer Füße gerichtet, so wenden wir uns plötzlich ganz ins Entgegengesetzte, wie eine Wetterfahne im Gebirge.」²⁾(T.17)

이것은 여태까지 人間이 자신의 생활을 規定하고 解釋하고 解明하면서 그 判斷의 規準으로 하고 있는 觀念이 송두리째 그 効力を 喪失하고 만다는 것이 된다. 睡眠이나 放心狀態와 같은 흐리멍덩한 散漫한 精神狀態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Kafka 作品의 主人公들은 급기야 그들의 表象을 갖는 가 하면 그뻔 이미 整理 解明할 수도 없는 어떤 世界속으로 밀려나 버리는 것이다.³⁾

이러한 根底에 깔려있는 것은, 『어느 戰爭의 手記』(以下『手記』라 함)에서 青年 Kafka의 마음

- 1) 『사냥군 그락쿠스』의 뜻하지 아니한 순간적인 不注意, 放心, 航路의 錯誤, 키의 잘못 回轉(B.77 참조) 및 後出 註 3 參照.
- 2) Emrich教授는 <이를 自己止揚으로 풀이하고, 이 自己止揚이 眞理에 도달하는 前提가 되며, 人間の 自己止揚은 육체적 정신적 自己否定이 아니라 轉換이며 慣習의 存在圈에서의 脫出이라> 말하고 있다. Emrich: Franz Kafka, in: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Bd. II, Strukturen und Gestalten, Hg. von Otto Mann u. Wolfgang Rothe, Franke Verlag, Bern/München 1967, S.182f. 參照 (以下『20世紀 獨文學』이라 함)
- 3) Emrich教授는 『訴訟』의 Josef K.는 막 잠에서 깨어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기습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城』의 K.는 奇妙한 마을과 城이라는 世界속에 <길을 잃어> 들어가게 되며, 『시골의사』는 불운하게도 <한밤중 잘못 울린 종소리>를 쫓아가는 것 등이라」 그 實例를 들고 있다. Emrich: Franz Kafka, siebente unveränderte Auflage,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Bonn 1970, S.17f. 參照 (以下『Emrich』라 함)

을 사로잡은 바, 하나의 根本的인 認識批判的 問題의 提起로서, 그것은 우리들의 이른바 日常的 表象이 人間 生活을 保障하고 整理할 수 있을까 하는 問題가 되고 있다. 우리들의 悟性과 感性에 의해 規制되고 있는 表象은 根據없는 것으로 特徵지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表象은 事物이나 世界聯關을 確保할 能力도 갖지 못하며, 그것은 마치 <홀날리는 눈처럼 내 주위로 가라앉는다.>⁴⁾(B.33) 그리고 <그 아름다운 輪郭을 잃고 만다.>⁵⁾(B.25)

사냥꾼 Gracchus가 自身의 變身이라 생각하는 <나래를 퍼덕이며 날라다니는 나비>(B.77 참조)와 비슷한 比喩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

「실사 박쥐보다도 추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린 나래를 퍼덕이며 날라다니고 있는 거다. /wir flattern, wenn wir auch häßlicher als Fledermäuse sind.」⁶⁾(B.43)

또한 이 『手記』의 가장 日常的인 事件이 불가사의하게도 가장 不可解한 事象으로 特徵지어지고 있는 것은 두 女人이 주고 받는 날씨에 관한 평범한 對話가 알아듣기 힘든 수수께끼 처럼 들린다는 점이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아직 어린 아이 때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낮잠을 자고나서 눈을 뜨니까, 아직 의식이 몽롱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발코니에서 밑을 내려다 보며, <이봐요, 거기서 뭘하고 계시는 거죠, 현대 날씨가 무덤잖아요?>하고 평소 때와 같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나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나무그늘에서 간식을 하고 있어요.> 두 女人은 별로 깊이 생각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었으며, 그 부인쪽은 물음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고, 저의 어머니 대답을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상태로 별로 뚜렷한 의미가 있어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⁷⁾(B.33)

이에 대해 質問을 받은 相對인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注目할만한 것이긴 하나 전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이 사건의 眞實性을 믿지 않으며, 그것은 저같은 것이 꿰뚫어 볼 수 없는 어떤 특정한 目的에 부합되도록 考案되어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daß dieser Vorfall überaus merkwürdig sei und daß ich ihn keineswegs begreife... daß ich an dessen Wahrheit nicht glaube und daß er einem bestimmten Zweck, den ich gerade nicht durchschaue, erfunden sein müsse.」(B.33)

日常世界가 <아직 의식이 몽롱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 전혀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事件全體는 世界를 바라볼 때의 두개의 서로 다른 可能性

- 4) 「아르키메데스의 點에서 보면 世界는 일면 진기하고 非現實的이며 不可思議하게 보인다. 이미 世界가 連續하는 時間의 表面上의 法則性에 의해 支持되지 않기 때문에 人間은 이를 부단히 붕괴하는 無常의 世界로 看做하게 된다」(前出『20世紀 獨文學』S.187 參照)
- 5) 「Kafka는 모든 순간적 現象을 時間과 因果와의 연속에서 解放시켜, 여기에 문자 그대로의 絕對的 具象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Kafka가 말하는 바 <不壞의 것>, 즉 <높은 自由에의 上昇>은 오로지 모든 外觀의 合法性을 止揚함으로써 도달될 수 있다.」(前出『20世紀 獨文學』S.188 參照)
- 6) 「眞實性을 획득하려는 이 不可能性은 이미 青年 Kafka에 있어선 극도로 根源的인 認識批判 내지는 言語批判에 달하고 있다」(前出『Emrich』S.18 參照)
- 7) 1904년 8월 28일자 Brod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두 女人의 對話에 대하여 Kafka는 <그때 나는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고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確固不動한 자세에 놀라고 말았다>(Br.29)고 덧붙이고 있으나, 사실 이것은 Kafka의 어머니와 다른 女人과의 대화의 체험으로 그가 이 『手記』에 그대로 轉用한 것이라고 Wagenbach는 쓰고 있다. Wagenbach: Franz Kafka, Rowohlts Monographien, Hg. von K. Kusenberg 1978, S.41 參照. (以下『Wagenbach』라 함)

을 시사하는 一例로 서술된다. 이 두 女인이 <깊이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대화를 지극히 自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質問과 答을 당연한 것으로 期待하는 것처럼, 世界는 無反省的으로 安全하고 堅固한 世界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世界는 眞實性이 믿어지지 않는 듯 한, 사실 같지도 않은 의지할데 없는 世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幼年時節의 體驗은 이 앞의 文章에서도 그 實例를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블렌디의 술잔이 마치 記念碑처럼 단단히 테이블위에 세워져 있는데, 내 주위에선 모든 事物이 마치 훑날리는 눈처럼 가라앉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진상을 당신한테서 듣고싶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Und ich hoffe von Ihnen zu erfahren, wie es sich mit den Dingen eigentlich verhält, die um mich wie ein Schneefall versinken, während vor andern schon ein kleines Schnapsglas auf dem Tisch fest wie ein Denkmal steht.」(B.33 및 前出 註 4 參照)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미 그의 이 初期의 斷篇에서 <生存不可能의 證據/Beweis dessen, daß es unmöglich ist zu leben> (B.19)가 분명하게 證明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記述의 면밀성과 기술되고 있는 것의 理解不可能性, 이러한 不均衡과 矛盾들은 이미 많은 Kafka 研究者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어진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이 『手記』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部分의 考察과 分析으로 問題의 核心에 近接하려 한다.

現存하는 Kafka 作品中 최초의 것으로는 大學時節의 친구인 Oskar Pollak에게 보낸 書簡에 들어있는 마을의 <수줍음 잘타는 장다리/Der schamhafte Lange>를 도시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나이/Der Unredliche in seinem Herzen>가 방문하는 이야기⁸⁾와 《어린 아이와 도시/Das Kind und die Stadt》⁹⁾이다. 後者は 그 스토리의 展開가 자못 길어질듯 한 것으로 추정¹⁰⁾되나 아쉽게도 그 타이틀만이 서한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¹⁹⁴⁵

그런데 Kafka 初期의 代表作인 이 『手記』는 1904/1906에 그 初稿(1. Fassung)가, Winter 1909/1910에 그 두번째의 原稿(2. Fassung)가 쓰여지고 있는데¹¹⁾, 이 두번에 걸친 Kafka의 淨書가 한결 같이 第一部—第二部—第三部の 順序로 이는 未完成의 作品인데다 이야기의 줄거리로 보아선 실제로 第一部—第三部—第二部の 順序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비약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 作品은 Kafka가 Hofmannsthal의 散文革命에서 얼마만큼 影響을 받아 <그의 時代의 否定的 要素를 받아들였는가>¹²⁾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¹³⁾ 독일 浪漫派의 長篇에는 이와

8) Br.14-16, 1902년 12월 20일자 Oskar Pollak에게 보낸 편지

9) Br.21, 1903년 11월 9일자 Oskar Pollak에게 보낸 편지

10) 편지에 의하면 移書에 時間이 걸려야 하므로 몇장씩 편지째 마다 보내마고 했는데 그 후의 편지엔 나타나 있지 않다. (Br.21 參照)

11) Binder: Kafka 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Winkler Verlag, München 1977, S.44 및 81 參照 (以下 『Binder KK』라 함)

12) 「Mit dieser habe ich das Negative meiner Zeit.」(H.89, 제4 노트)

13) 「반대로 그는 Hofmannsthal을 인용했는데 《현관에 깔린 축축한 돌내음/Der Geruch nasser Steine in einem Hausflur》이라는 귀절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은밀한 것,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저절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듯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46) (以下 『Brod』라 함)

「Kafka가 引用한 이 한 귀절(현관에 깔린 축축한 돌내음)은 Chandos卿의 體驗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같은 要領不得한 覓잡을 수 없는 즐거리의 이야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이와 유사한 部類의 것들로 추정된다. 이는 다분히 Kafka 青年期 特有의 이미지의 充溢 내지는 汎濫에 의한 결과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젊음이 넘치는 抒情과 感受性 넘치는 아름다운 表現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해도 그가 살아서 이를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며 그 밖의 것들은 遺稿로 남은 것들이다.

2. 構成上의 問題點

이 『手記』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問題가 되는 것은 第一部와 第三部가 第二部를 뛰어 넘어 連結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의 作品中 최초로 發表(1909)된 두개의 挿話を 포함하는 第二部는 완전히 獨立된 것으로서 어째서 이것이 第一部와 第三部사이에 끼어들어 連結되고 있는지 이는 참으로 想像하기 힘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억지로 結付시켜 생각해 보면 이는 二重의 테두리를 갖는 額子小説/Rahmenerzählung(挿話小説)이 된다.¹⁴⁾

그 바깥 테두리는 夜會에서 빠져나온 두 青年이 Prag市에서 Kleinseite라 불리는 Moldau江 西岸의 Laurenziberg에 오르는 이야기로서 第一部와 第三部는 그 途上의 이야기다. 登山이야기를 담고 있는 第二部를 Laurenziberg 登山이라고 한다면, 第一—第三—第二의 順序가 되어야 하나 Kafka의 두번에 걸친 淨書¹⁵⁾가 한결같이 第一—第二—第三의 順序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任意로 이를 뒤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니라면 主題가 主題이니만치 커다란 飛躍이나 缺陷이 있어서 골똘히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다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構成을 하고 있는 쪽이 훨씬 內容에 보다 適合하다고 作者스스로 直觀的으로 생각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그 내용부터 간추려 보자.

2-1. 第一部/[Abschnitt] I (B.7-18)

第一部에서는 <나/Ich>라는 人物이 夜會를 빠져나오려다 未知男(mein neuer Bekannter)에게 붙들려 얼토당토 않게 사랑의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한 하소연을 듣게 된다. 두 사람은 그 사나이의 戀人의 몸종인 下女의 전송을 받으며 거리로 나와, 戀人의 이야기를 하면서 겨울 밤거리를 걷는다. <나>라는 사람은 이 음흉한 길동무와 억지 同行을 하던 중 갑자기 그 사나이가 자신을 죽일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짓눌려 도망을 치게 되나 결국 발이 걸려 넘어져 추적당하고 만다. <나>라는 사람은 두 손을 벌려 헤엄치듯 버둥거리며, 鋪道위와 다리 난간의 聖者像 주위를 쫓겨다니지만

출판된 Hofmannsthal의 『詩에 대한 對話/Gespräch über Gedichte』에서 나온 것으로 Kafka는 이 『對話』에 깊은 感銘을 받아, 여기서 몇가지 말들을 그의 『手記』속에 그 답게 바꾸긴 했어도 轉用했다. 예컨대 Hofmannsthal은 Stefan Georg의 <익은 과일 大地를 두드리다/Die reifen Früchte auf den Boden klopfen>라는 一行을 引用하고 있는데, Kafka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실익은 과일이 제 정신이 아닌 양 나무에서 떨어져 大地를 두들겼다/Von den Obstbäumen schlugen unreife Früchte irrsinnig auf den Boden.>(B. 23, 散步) 이러한 表現에 Kafka는 感動되는 것이다.」(『Wagenbach』 S.42)

14) 『Binder KK』 S.45 및 82 參照 및 Binder 『Kafka Handbuch II. Das Werk und seine Wirkung, Kröner Verlag 1979, S.224f. 參照 (以下 『Binder HB』라 함)

15) B.256, Brod의 初版後記 參照

끝내 붙잡히는 몸이 되며, 할 말이 있으면 싫건 하라고 고향을 지르면서 어찌하여 자신이 이 사나
이와 同行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불가사의하게 여긴다.

2-2. 第二部/[Abschnitt] II 「즐거움 혹은 生存不可能의 證據/Belustigungen oder Beweis
dessen, daß es unmöglich ist zu leben」

1) 騎行/Ritt (B. 19-20)

<나>라는 사람은 그 知己의 어깨위에 올라탄채 자갈투성이의 길을 달려가면서, 길가의 나무가 하
늘을 가릴 때까지 자라게 한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음¹⁶⁾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달리던 중, 그 知己가 넘어지자 뒤를 독수리에게 맡겨두고
그 곳을 떠난다.

2) 散步/Spaziergang (B. 20-23)

<나>라는 사람은 산길을 고르고 자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면서 두손으로 뒷 머리에 깎지를 끼고
별들을 바라보며 山頂에서 滿月을 떠오르게 한다. 졸리는 것을 참으며 올라가자니 길은 갑자기 발
밑에서 끊겨 萬物을 집어삼킬듯, 마침내 소나무가지에 몸을 누이고 머리를 등우리에 기댄채 잠이든
다. 잠에서 깨어나자 이미 해는 떠있고 자연속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풀에서 자고 냇물과
하늘을 바라보며 未來를 생각하고 있노라니 바람이 불어와 냇물에 물결을 이룬다. 어찌하여 점잖은
신사가 이제도 저러한 방법으로 냇물을 건너는지 이상히 여긴다.¹⁷⁾

3) 肥大漢/Der Dicke

a. 風景에 대한 人事/Ansprache an die Landschaft (B. 24-27)

네 사람의 裸漢이 맨 가마에 오른 東洋風의 肥大漢이 내를 건너면서, 아름다운 風景은 사람들에
게 보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각에 방해가 된다고 투덜댄다. 自然의 아름다움을 거듭 찬양하면
서 숨될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자 自然은 돌연 變貌를 시작, 모든 것은 <그 아름다운 輪郭을 잃
고>¹⁸⁾ 흐려져, 裸漢들은 결국 갈대밭 구덩이에 빠지고 가마는 물에 떠내려 간다. 肥大漢은 <나를
구하려 하지마라, 이는 물과 바람의 복수니라>¹⁹⁾고 말하며, 장관설을 늘어놓는다.

b. 祈禱하는 사나이와의 對話開始/Begonnenes Gespräch mit dem Beter (B. 27-35)

16) 「난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었다. 누가 내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날 도
와주려 하지 않는다. 전혀 아무도./Ich habe niemandem etwas Böses getan, niemand hat mir etwas
Böses getan, niemand aber will mir helfen, lauter niemand.」(B. 19) Kafka는 이 《騎行》의 一部를 그
의 處女出版集 『觀察/Betrachtung』(1912年 12月, Rowohlt社)에도 《산으로의 소풍/Der Ausflug ins
Gebire》이라 改題하여 실고 있다.(E. 27).

17) 「낮설은 事物에 대한 Kafka의 냉담한 눈초리, 關心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는 듯한 이 눈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驚嘆하고 있는 이 記錄, 이것이 곧 Kafka의 姿勢가 되어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
자세로 後期의 作品도 쓰여지고 있다」고 Wagenbach는 강조한다.(前出 『Wagenbach』 S. 42)

18) 「그런데 부탁이 있다. 산이여, 꽃이여, 풀이여, 숲이여, 강이여, 숨 쉴 수 있도록 조금만 틀을 다오. 그
러자 갑자기 주위의 山엔 부산한 변동이 일어났다……한편 모든 것은 그 아름다운 윤곽을 잃고만다.」
(B. 25 및 前出 註 5 參照)

19) 「Versuchen Sie es nicht, mich zu retten. Das ist die Rache des Wassers und des Windes.」(B. 27)

내²⁰⁾가 반한 아가씨의 얼굴을 보기 위해 教會에 다니고 있을 즈음, 깡마른 青年이 바닥에 엎드려 祈禱를 드리고 있는 품이 남의 耳目을 끌기에 쫓아가 詰問하자, <다른 사람들의 視線을 빌어 내게 망치질을 하게 하고싶다는 욕망²¹⁾ 때문이라 告白한다. 그러자 나는 <그것은 이 熱病, 陸地에서의 열미, 나병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열에들며 정신이 흐려져 事物의 本名으로 만족할 수 없고 분에 차지도 않아 이제사 서둘러 事物에 우연한 이름들을 마구 퍼붓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²²⁾고 말한다. 祈禱하는 사나이는 시치미를 떼고 되려 <다른 사람들 앞에선 데이블 위의 불랜더 술잔마저도 記念碑처럼 단단히 세워져 있는데 내 주위에선 事物들이 훑날리는 눈처럼 가라앉은 것은 대체 무슨 영문인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²³⁾고 답하고, 어릴 때 어머니와 계단아래의 부인과 의 소박한 對話²⁴⁾에 감동한 이야기를 하고는, 그가 윤곽이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진열대의 유리창²⁵⁾속으로 모습을 감추곤 하면서 都市를 배회하고 있노라니, 돌연 집들이 무너지고 行人들이 路上에 넘어지기도 하고, 廣場에서는 건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나 자기 이외에는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노라고 투덜댄다. 이에 대해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평범한 것이라 말한다.

c. 祈禱하는 사나이의 이야기/Geschichte des Beters (B. 35-42)

祈禱하는 사나이의 말을 빌면, 그가 夜會에서 아가씨와 얘기하는 동안 바른 쪽 다리가 떨렸으며 당신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薄葉紙의 실루엣/aus Seidenpapier, so silhouettenartig이라는 아가씨로부터의 말을 듣고는, 이에 대해 그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상관도 없는 일들 만을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나아말로 자신에 관해선 분명한 것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²⁶⁾ 당신은 장난투로 말하지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나와 같은 몰골이 될 것이라 푸념을 늘어놓으며,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남자걸으로 가 난 지금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으니 내게 피아노를 치게해 달라 억지 부탁을 하고는 칠려는 자세를 취하자 의자에 앉은채로 들려나가 버린다. <그는 훌륭히 연주했다>²⁷⁾는 헛 치사를 귓전으로 흘리며 남의 외투가 입혀진채 광장으로 나오자 天空과 고층건물들이 머리위로 덮쳐온다. 너희(하늘과 광장)가 實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는 내게 실제로 그러하다 믿게 하려 하지만 너희가 있는 것은 옛날의 일로 이제는 달도 달이 아니게 되었으니 어떤 이름을 불

20) 여기서부터 肥大漢이 一人稱의 호칭으로 바뀐다.

21) 「Bedürfnis, von diesen Blicken mich für eine kleine Stunde festhämmern zu lassen.」 (B. 31f.)

22) 「Ist es nicht dieses Fieber, diese Seekrankheit auf festem Lande, eine Art Aussatz? Ist Euch nicht so, daß Ihr vor lauter Hitze mit den wahrhaftigen Namen der Dinge Euch nicht begnügen könnt, davon nicht satt werdet und über sie jetzt in einer einzigen Eile zufällige Name schüttet.」 (B. 32)

23) 144페이지 6행 이하 참조

24) 143페이지 13행이하 및 註 7 參照

25) M. 176 參照

26) 「이젠 이야기 부스러기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침부터 끝까지 죄다 말해 주십시오. 전부가 아니면 들어주지도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든 전부들 듣고 싶은 겁니다. /Ich will nichts mehr in Brocken hören. Erzählen Sie mir alles, von Anfang bis zu Ende. Wenig höre ich nicht an, das sage ich Ihnen. Aber auf das Ganze brenne ich.」 (B. 18)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모든 것이 급기야 解明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固執은 그의 初期의 作品에 나타나는 明確性에 대한 希望과 結付되기도 한다. (『Wagenbach』 S. 41 參照)

27) E. 32—B. 46-47 比較, 1910年 3月 27日 字 Bohemia라는 독일말 신문에 다른 네 散文과 함께 이것이 실려 있으며, 1908年 3月 『Hyperion 誌』 1卷에는 表題없이 실려 있다. (『Binder KK』 S. 86 및 74 參照; 『Binder HB』 S. 249 參照)

여도 무방하다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달려가다가 醉客과 부딪힌다. 당신 Paris에서 오셨지요 하고 은근한 말을 걸며 Paris의 화려한 생활을 물으려하나 그 취객은 양미간을 곤두세우며 끝내 義兄弟의 집을 찾는다.

d. 肥大漢과 祈禱하는 사나이의 對話繼續/ Fortgesetztes Gespräch zwischen dem Dicken und dem Beter (B.42-44)

祈禱하는 사나이는 肥大漢의 詰問에 대해 혼자 살고 있노라면 肉體가 消滅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教會에 나가 사람들의 視線을 받음으로써 肉體를 되찾으려 했노라 告白한다.

4) 肥大漢의 破滅/Untergang des Dicken (B.44-45)

이러한 장판설이 강물 속을 떠내려가는 사람(肥大漢)과 강변 쪽의 사람(나)과의 사이에 說往說來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될 수도 없지만 침부터 超現實的인 對話임엔 틀림없는 것이다.

강물은 폭포에 다달아 肥大漢은 휘말려 떨어진다. 나는 질식할 것만 같다. 강기슭은 끝없이 펼쳐져 내 팔은 멀리있는 里程標에 닿아 마침내는 구름처럼 길게 늘어나 내 머리를 으깨는 것 같다. 머리는 개미알처럼 되고 다리는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나지만 역시 난 몸집이 작아 눈사태와 함께 굴러 떨어진다.

2-3. 第三部/[Abschnitt] II (B. 45-50)

第三部는 第一部の 계속으로 第一部の <나>라는 사람과 未知男이 Laurenziberg에 오르는 途上에 있다. 그 未知男은 첫사랑에 뛰어들고 싶어하지만 무엇하나 신뢰받지 못하는 처지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노라 말을 한다. 당신이 自殺이라도 하지 않는 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말하자, 그는 화를 내며 당신은 누구한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며, 또한 남을 사랑할 수도 없을 것이라 내게 욕설을 퍼붓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약혼중이라고 말을 하자 그는 갑자기 풀이 꺾여 칼을 꺼내 자신의 어깨를 찌른다. 나는 봄날 戀人과 산보하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자위한다.

3. 『斷篇集』의 斷篇 『어느 戰爭의 手記』에서의 《두 對話》와의 關係

全集 卷5 『어느 戰爭의 手記』
Beschreibung eines Kampfes

II. 3. b 「祈禱하는 사나이의 對話開始」
Begonnenes Gespräch mit dem Beter

II. 3. c 「祈禱하는 사나이의 이야기」
Geschichte des Beters

全集 卷4 『斷篇集』
Erzählungen

「斷篇 『어느 戰爭의 手記』에서의 두 對話」
Zwei Gespräche aus der Erzählung <Beschreibung eines Kampfes>

.....「祈禱하는 사나이의 對話」
Gespräch mit dem Beter

.....「醉客과의 對話」
Gespräch mit dem Betrunkenen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手記』中 두 부분이 발췌되고 다소의 수정은 있긴 하나 『斷篇集』에 改題되어 실려 있다. 「醉客과의 對話」는 1909년에 『Hyperion 誌』(März/April 1909 in 8. Heft)에 발표되고, 1912년 12월에 出版된 小品集 『觀察/Betrachtung』(Erste Augushälfte 1912 印刷)에도 나머지 部分中 一部가 「衣裳/Kleider」²⁷⁾과 「樹木/Die Bäume」²⁸⁾이라는 題目으로 收錄되어 있으며, 餘他の 部分은 遺稿로 出版되었다. 더우기 『觀察』(E. 21-39) 冒頭의 「國道上의 아이들/Kinder auf der Landstraße」이 『手記』의 두번째의 淨書에서는 惡夢에서 脱出하여 故郷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서 이는 의당 第三部에 代身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야기는 친구와 國道上을 뺨박질하던 어린 시절의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헤어져, 자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南國으로 달려간다는 이야기로 牧歌의인 少年時節의 憧憬이 描寫되고 있다.²⁹⁾

『觀察』은 『手記』와 마찬가지로 青春의 不安이 활기찬 文體로 이렇게 表現되고 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Es ist ein Wunder, daß wir nicht singen.」(E. 27, 「산으로의 소풍/Der Ausflug ins Gebirge」)³⁰⁾

「소나기가 가신 후의 공기의 설득력을 보라/Man sehe die Überzeugungskraft der Luft nach dem Gewitter!」(E. 30, 「歸路/Der Nachhausweg」, 1907, zweite Jahreshälfte)

「나는 나의 未來에 대해 나의 過去를 존중한다. 그러나 양쪽이 다 훌륭해서 그 잘 잘못을 말할 수 있다. 다만 내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신 신의 섭리가 불공평함을 탓할 따름이다/Ich schätze meine Vergangenheit gegen meine Zukunft, finde aber beide vortrefflich, kann keiner von beiden den Vorzug geben und nur die Ungerechtigkeit der Vorsehung, die mich so begünstigt, muß ich tadeln.」(E. 30-31, 「歸路」)

이러한 特色은 Kafka에게선 신기하리만치 찾아보기 어려운 밝고 素朴한, 그러면서도 歡喜에 넘치는 그러한 表現들이다. 더우기 「인디언이 되고 싶은 마음/Wunsch, Indianer zu werden」³¹⁾(E. 34-35, Vor Sommer 1912)에선 더더욱 切實하게 나타나 인디언이 裸馬를 달리고 있을 때 말의 목덜미며 머리가 잇달아 없어져 가고 있다.

「인디언이 됐으면! 서슴치 않고 달리는 말에 올라 비스듬히 바람을 가르며 震動하는 大地 위를 거듭되는 짧은 戰慄마저 느끼면서, 마침내는 拍車를 내던지고, 허기야 拍車라는 것조차도 없었지만, 마침내는 말고삐를 집어던지고, 허기야 말고삐도 없었지만, 그리고는 말끔히 짙은 曠野와 같은 大地조차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미 말의 목덜미도 말의 머리도 없이./Wenn man doch ein Indianer wäre, gleich bereit, und auf dem rennenden Pferde, schief in der Luft, immer wieder kurz erzitterte über dem zitternden Boden, bis man die Sporen ließ, denn es gab keine Sporen, bis man die Zügel wegwarf, denn es gab keine Zügel, und kaum das Land vor sich als glattgemahlte Heide sah, schon ohne Pferdehals und Pferdekopf.」(E. 34-35)

그 밖에도 『觀察』에는 夜會에 招待받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知己와 우연히 길동무가 되어 밤거리로 헤메다가 뒤늦게 그가 사깃군임을 깨닫는다는 「사깃군의 탈을 벗기다/Entlarvung eines Bau-

28) E. 35—B. 43-44 比較

29) 『Binder HB』 S. 245 參照

30) 前出 註 16 參照

31) 『Binder KK』 S. 115 및 『Kafka in neuer Sicht』 S. 127, 『Binder HB』 S. 252 參照

ernfängers] (E. 24, Herbst 1911/Winter 1911/1912)³²⁾,

深夜에 暴風을 쫓아 外出하여 自身을 發見하며 自己本然의 姿態로 되돌아 온다는 「홀연한 散策 /Der plötzliche Spaziergang] (E. 26, 5. Januar 1912)³³⁾,

獨身者끼리의 가련한 처지에 이끌려 푸념하는 「獨身者의 不幸/Das Unglück des Junggesellen] (E. 28, 14. November 1911)³⁴⁾,

장사에 시달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멋대로 空想을 부채질하는 「商人/Der Kaufmann] (E. 28-30, 1907 Zweite Jahreshälfte)³⁵⁾,

거리를 걸어가는 少女의 얼굴에 반사되는 夕陽을 보고 놀라는 「放心하여 밖을 보다/Zerstreutes Hinaussehen] (E. 30, Frühjahr 1907)³⁶⁾,

쫓고 쫓기는 듯한 「달려 지나가는 사람들/Die Vorüberlaufenden] (E. 31, Vor 1908)³⁷⁾,

通動電車안에서 自身の 地位에 不安해하는 「乘客/Der Fahrgast] (E. 31-32, Vor 1908)³⁸⁾,

지나쳐 가는 아름다운 少女의 無言의 소리를 듣는 「拒絕 /Die Abweisung [I]] (E. 33, Ende 1906)³⁹⁾,

競馬에서 1등이 될까 봐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競馬騎手를 위한 思索/Zum Nachdenken für Herrenreiter] (E. 33-34, Winter 1909/1910)⁴⁰⁾,

獨身者를 人間社會로 질질 끌어들이는 機能을 담은 「거리로 향한 창문/Das Gassenfenster] (E. 34, Winter 1906/1907)⁴¹⁾,

겨울 석양 무렵의 캄캄한 廊下에서 어린 아이의 亡靈이 들어와 망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不幸/Unglücklichsein] (E. 35-39, August/Oktober 1910)⁴²⁾ 等, Kafka의 人物들이 登場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의 「不幸」처럼 비교적 짜임새 있는 小品도 있다. 『日記』에도 「創造者로서의 어린이/Das Kind als Schöpfer] (T. 188f, 1912. 2. 28)라는 評論이 剽竊되어 新聞에 掲載된 이야기가 나와 있으나 이 역시 Kafka처럼 Vater-Komplex⁴³⁾가 강한 人間으로서 어린 아이가 自身の 象徴이 되지 않

32) Ebd. S. 113 參照

33) Kafka 『日記』 1912年 1月 5日字에 같은 말이 쓰여 있음. (T. 170) 및 『Binder HB』 S. 251 參照

34) Kafka 『日記』 1911年 11月 14日字 (T. 18) 및 『Binder KK』 S. 108, 『Binder HB』 S. 253f. 參照

35) 『Binder KK』 S. 74 및 『Binder HB』 S. 256 參照

36) 1910年 3月 27日字 Bohemia라는 독일말 신문에 「Am Fenster」라는 表題로 실렸으며, 1908年 3月 『Hyperion 誌』 1卷에는 表題없이 실렸으나 『Betrachtung 1912』에서 현재의 表題가 붙여짐. (『Binder KK』 S. 60 및 86 參照)

37) 1910年 3月 27日字 上記 Bohemia신문에 「In der Nacht」라는 表題로 실렸으며, 1908年 3月 『Hyperion 誌』 1卷에는 表題없이 실렸으나, 1912년의 『Betrachtungen』에서야 비로소 「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表現이 붙여짐. (『Binder KK』 S. 86, 72 參照)

38) 1910年 3月 27日字 上記 新聞에 現在の 表題로 실렸으며, 1908年 3월의 上記 『誌』 1卷에 表題없이, 『Betrachtung von 1912』에도 現在の 表題로 실려있음. (『Binder KK』 S. 86, 73 參照)

39) 본래는 「Begegnung」이란 表題를 썼으나, 1908年 3월의 上記 『誌』 1卷엔 表題없이 실렸음. (『Binder KK』 S. 57f. 參照)

40) 1910年 3月 27日字 上記 新聞과 1908年 3월의 上記 『誌』 1卷에도 現在の 表題로 실려 있으며, 1913年 7月 21日字 日記에도 類似한 말이 있다. (『Binder KK』 S. 84-86 및 『Binder HB』 S. 258f. 參照)

41) 1903年 11月 7日字 Oskar Pollak에게 보낸 편지에 일찌기 이에 대한 暗示가 나타난다. 「넌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나에게 있어선 창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 창문을 통해 난 거리를 내다 볼 수가 있었다. 나 혼자만은 그게 불가능 했다.」(Br. 20)

42) 1911年 3月 3日 Brod에게 이것을 읽어줌 (『Binder KK』 S. 87 및 『Binder HB』 S. 226 및 254 參照)

43) 『아버지에의 便紙/Brief an den Vater』 (H. 119-162) 및 拙稿 :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7輯 S. 85-106, 第 18輯 S. 91-114 參照

는다고 斷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4. 結 語

問題의 提起에서 본 바와 같이 요컨대 현재까지의 構成上으로 보아서 <나>라는 사람과 未知男⁴⁴⁾과의 對話가 바깥 테두리를, 肥大漢의 이야기가 그 안테두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 祈禱하는 사나이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그것이 思想的으로 가장 核心에 가깝다고 하는, 말하자면 소용돌이와 같은 構成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나>와 未知男, 肥大漢과 祈禱하는 사나이의 두 남자끼리의 關係, 그나마도 <相互間 조그마한 好感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쩐지 密着되어 있는> 偶然한 共同體, 獨身者끼리의 同病相憐과 같은 共感에만 基因하고 있는, 젊은이 다운 나름대로의 友情이 두개의 支柱木이 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그 두 사람끼리는 양쪽다 한쪽밖에 戀인이 없다고 하는 절름바리 關係에 있는 것이다.

『第五 노트』에 보면 「世界와 나의 自我가 풀 수 없는 抗爭을 계속하여 나의 肉身을 찢는다/Die Welt und mein Ich zerreißen in unlösbarem Widerstreit meinen Körper.」(H.97)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싸움이란 精神的인 것과 肉體的인 것(物的인 것), 人間과 自然, 自我와 世界와의 鬭爭인 것이다. 物的인 것의 反亂에 대하여 自我가 逆襲을 꾀하지만 精神的인 것과 物的인 것과의 相克은 雙方의 實在性을 危機에 빠트리게 한다. 人間은 不安을 眩惑시키기 위하여 自然의 實在性을 否定하고 自然에 命令을 加하지만 自然은 人間의 意志대로 變貌하는 듯한 시늉만을 낼 뿐, 되려 人間을 變身시킨다. 肉體는 자연히 크게 膨脹하지만 頭腦는 極小化하여 自然에 復讐當한 人間은 沒落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獨身者는 肉體性을 되찾기 위하여 共同體를 憧憬하나 男女間의 愛情마저 不安에 浸蝕當하여 그 憧憬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두번에 걸친 Kafka의 淨書를 미루어 어떤 커다란 飛躍이나 缺陷이 있어 골똘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다가 作者의 直觀처럼 무너질 것 같은 構成을 하고 있는 쪽이 浪漫主義의 絕對論的 個人主義에서 오는 情緒의 甘味로움으로서 Heine나 Kafka처럼 젊은 유대적 作家가 독일적인 Gemüt에서, 필경엔 獨逸人의 마음에서 出發했다고 하는 象徵的인 일일런지도 모르는 것이다.

略 字 表

B. = Beschreibung eines Kampfes, Novellen, Skizzen, Aphorismen aus dem Nachlaß.

E. = Erzählungen.

H. =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T. = Tagebücher 1910-1923.

Br. = Briefe 1902-1924.

M. = Briefe an Milena

44) 이 未知男(mein neuer Bekannter/낯선 사나이)은 Kafka 高校時節의 친구 Ewald Felix Pribram이 그 모델이 되고 있다고 Brod는 말하고 있으나 (『Binder KK』 S.49 및 54 參照), 이 作品에 나오는 네사람 모두가 青年時代의 Kafak의 分身으로 斟酌되며 青年時節의 그의 知己들의 온갖 그림자들이 이 分身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Binder HB』 S.247f. 參照)

參 考 文 獻

-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n in 7 Bä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 Bd. 4: Erzählungen.
- Bd. 5: Beschreibung eines Kampfes, Novellen, Skizzen, Aphorismen aus dem Nachlaß.
- Bd. 6: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 Bd. 7: Tagebücher 1910-1923.
- Franz Kafka: Briefe 1902-1924, Hg. von Max Brod,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5.
- Ders.: Briefe an Milena, Hg. von Willy Haas,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 W. Emrich: Franz Kafka, siebente unveränderte Auflage,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Bonn 1970.
- Ders.: Franz Kafka, in: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Strukturen und Gestalten, Hg. von Otto Mann und Wolfgang Rothe, Francke Verlag, Bern/München 1967.
- H. Binder: Kafka 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Winkler Verlag, München 1977.
- Ders.: Kafka in neuer Sicht, Mimik, Gestik u. Personengefüge als Darstellungsform des Autobiographischen, 1. Aufl. Stuttgart, Metzler 1976.
- Ders: Kafka Handbuch II, Das Werk und seine Wirkung, Kröner Verlag 1979.
- K. Wagenbach: Franz Kafka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owohlt's Monographien, Hg. von K. Kusenberg 1978.
- M.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